18일 오후 가수 김호중(33)의 전국 투어 콘서트 '트바로티 클래식 아레나 투어 2024'가 열리는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 인근에 팬들이 줄지어 서 있다. 연합뉴스뺑소니 혐의로 입건되었지만 가수 김호중의 공연에는 많은 팬들이 몰렸다. 18일 뺑소니 혐의로 입건된 가수 김호중(33)의 전국 투어 콘서트 '트바로티 클래식 아레나 투어 2024'가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에서 열렸다. 뺑소니 혐의로 인해 공연 진행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었지만 공연 주최측은 공연은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논란 속에도 김호중 씨의 인기를 실감하듯 공연장 주변에는 전국에서 모인 팬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인터넷 예매 기준 이날 공연 관람 가격은 VIP석이 23만원, R석이 21만원이다. 최소 20만원이 넘는 가격임에도 수천석의 좌석이 팔린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 예매사이트에는 공연 당일 예매 취소가 불가능하며 하루 이틀 전 취소할 경우 수수료가 티켓 금액의 30％라고 안내되어 있다. 이 때문에 일부 팬들은 공연 취소를 해주기를 바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김 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사고후 미조치 등)를 받고 있다.